



하루에 하나

2026.6.1

JUNE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원/달러 환율

1,507.9원 (+5.10원)

KOSPI

8,476.15 (+290.86, +3.55%)

KOSDAQ

1,074.80(-29.56, -2.68%)

국고채 10년 금리

4.068(-0.079%p)

동 자료는 오늘 발간된 자료의
요약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각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hanafn.com

Special Report

6월 주식시장 전망과 전략 기준금리를 인상한다면: 1999년에서 답을 찾다 [이재만]

Global Asset Strategy

New K-ETF 코스닥 액티브, 고배당주Plus커버드콜 액티브 [박승진]

New K-ETF 200커버드콜 채권혼합, 만기연장 특수채 액티브 [박승진]

산업분석

AI/인터넷/게임 인터넷, 게임 기업의 국방 AI 진출 [이준호]

Monthly & Weekly

은행 지나친 소외 [최정욱]

자동차 글로벌 친환경차/2차전지 Monthly [송선재, 김현수]

철강금속 중국 정부 광물자원법 시행 규정 발표 [박성봉]

반도체 및 소부장 모두의 눈과 귀가 집중될 Nvidia GTC [김록호]

에너지/화학 First Solar, 주가 18년래 최대 [윤재성]

2차전지 Grid에서 On-site 발전 사업자로 확장되는 비즈니스 모델 [김현수]

디지털자산 불확실성 재차 확대. 제도권 편입 지속 [이준호]

글로벌리서치

Tech&Stock Weekly 데이터 인프라 소프트웨어에게 AI는 위협이 아니라 성장 동력 [김재임, 김시현]

Hana China Weekly AI PC와 AI 서버, 양대 성장 엔진 탑재한 레노버에 주목 [백승혜]

HANA US Weekly 하반기엔 AI와 제조업을 같이 봐야 하는 이유 [강재규]

단기투자유망종목

삼성전자,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HD현대중공업, LG이노텍, KT&G, 삼성증권, OCI홀딩스, 덕산하이메탈, 에치에프알



Equity

Compliance Notice

본 조서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2026년 6월 1일 | Global Asset Research

6월 주식시장 전망과 전략

기준금리를 인상한다면: 1999년에서 답을 찾다

2026년 연말까지 2027년 이익 규모를 모두 반영한다면 PER 리레이팅이 없어도 S&P500지수는 9,340p(=EPS 389달러* PER 24배), 코스피 10,400p(=시가총액 8,811조원=순이익 890조원* PER 9.9배)까지 상승 가능하다. 고유가 고민이 있긴 하지만 현재 미국 Tech 섹터의 투자 증가율(YoY 80%)이 WTI 가격 상승률(YoY 60%) 보다 높아 이익 증가는 가능하다. 단 4분기에는 WTI 가격 90달러(YoY 57%)를 하회해야, 미국 하이퍼스케일러의 CAPEX 증가율(YoY 55%)이 높을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한 연준(Fed)의 기준금리 인상 우려도 있다. 미국 투자 경기가 좋긴 하지만, 현재 고용시장이 타이트한 상황이고, 소비심리는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고, 주택시장도 위축 국면이라는 점을 감안 시 현실적으로 기준금리 인상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기준금리 인상을 고민한다면, 1999년 Tech 주도의 지수 상승, 하반기 연준(Fed)의 기준금리 인상이 있었던 시기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1999년 하반기 기준금리 인상 이후에도 지수 상승이 이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과 유사한 투자 중심의 경제 성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1999년 기준금리 인상 전과 후의 변화를 간단하게 요약해 보면, 기준금리 인상 전 S/W 중심에서 H/W와 반도체 중심의 지수 상승으로 변했다. 다만 H/W와 반도체 중에서는 이익 성장이 지속됐던 기업으로 주가 상승이 집중됐다.

S/W와 자본재 그리고 금융섹터와 같은 1999년 상반기(기준금리 인상 전) 주도 업종 내에서 하반기(기준금리 인상 후) 종목별 주가 차별화가 심해졌다. 금리 인상 이후에도 주가 상승을 이어갔던 기업의 공통점은 수익성(영업이익률, 금융은 ROE)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거나 높아졌다는 점이다. 2000년 3월 Tech 버블의 종료는 이익 규모와는 상관없이 주가 과열(당시 시스코시스템즈)로 시총 1위 기업만 바뀐 상황에 나타났었다. S&P500 종목 선택 전략은 PER 하락과 이익 규모(성장) 그리고 영업이익률 상승 여부를 통해서 제시할 수 있다. 엔비디아, 알파벳,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JP모건, 비자, 애플로 압축할 수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코스피 내 시총 비중은 50%까지 높아졌지만, 12개월 예상 순이익 기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코스피 내 순이익 비중(12개월 예상 기준)은 무려 71%나 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영업이익률 정점 통과 여부가 주가 고점 통과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시그널이다. SK하이닉스 시총은 삼성전자 대비 93%까지 상승했다. 순이익 규모를 감안 시 SK하이닉스의 시총이 삼성전자를 추월하는 경우 과열을 알리는 위험 시그널이 될 수 있다. 한편 강세장에서는 삼성전기와 같은 시총 순위 급상승 기업들이 나올 수 있고, 이를 기반으로 전략 아이디어도 제시할 수 있다. 코스피 종목 선택 전략은 향후 성장률과 수익성 순위를 감안 시 시가총액 순위가 상승할 수 있는 기업으로 제시할 수 있다. 효성중공업, 한미반도체, 삼성중공업, 현대로템, LIG 디펜스앤에어로, LG, 카카오, 현대오트모터, 한국항공우주, 에이피알, HD현대마린솔루션, 삼성E&A.



Strategist 이재만 duke7594@hanafn.com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2026년 6월 1일 | Global Asset Research

Global ETF

Compliance Notice

본 조서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New K-ETF

코스닥 액티브, 고배당주Plus커버드콜 액티브

신규 상장 ETF(6/2)

- TIGER 코스닥 액티브, ACE 고배당주Plus 커버드콜 액티브

TIGER 코스닥 액티브: 국내 대표 주가지수 중 하나인 코스닥 지수를 기반으로 하는 액티브 ETF이다. 상관계수 0.7의 조건이 반영되는 액티브 운용 방식이 적용되며, 총 1,800여개의 코스닥 상장 기업들 가운데 편입 대상 기업들을 선별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바이오와 제조업, 콘텐츠&소비재 업종을 코스닥 핵심 섹터로 설정하여 종목들을 편입하고, 다른 다수의 기업들도 분산하여 함께 편입하는 투자전략을 통해 초과수익을 추구하는 ETF 종목이 되겠다. 포트폴리오는 정기 리밸런싱 없이 수시로 편출입하는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신규 상장 종목에 대해서는 상장 후 1거래일이 지난 후에 편입을 고려할 수 있다. 0.50%의 총 보수가 반영되는 액티브 ETF이다.

ACE 고배당주Plus 커버드콜 액티브: 국내 고배당주 포트폴리오에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함께 편입하고, 부분 커버드콜 전략을 조합하는 형태의 액티브 ETF이다. 국내 증시에 상장된 고배당주 종목들과 함께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이끌어 가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각각 10%의 비중으로 편입하여 고배당주 포트폴리오가 시장의 추세와도 동행할 수 있도록 한다.

커버드콜 전략에는 코스피200 콜옵션을 활용하는데, 전체 포트폴리오 명목 금액의 30% 비중까지만 콜옵션 매도 포지션을 구축하는 고정 커버드콜(월 배당 추구) 형태가 반영된다. 또한 현재는 위클리 옵션(주 2회)을 활용하여 커버드콜 포트폴리오가 구성되고 있으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데일리 옵션(ODTE)이 도입되는 시점에는 매일 콜옵션을 매도하여 배당 재원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주식 포트폴리오의 경우 일반적인 고배당 뿐만 아니라 감액 배당 기준을 충족시키는 기업들을 선별함으로써 배당과 절세가 함께 고려된 조합을 추구한다. 더불어 국내 콜옵션에서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지 않기 때문에, 커버드콜 포지션의 배당금 역시 비과세라는 점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비교지수(KRX-Akros 고배당주 20 위클리 고정 30% 커버드콜 지수)의 포트폴리오는 20개의 주식과 콜옵션 2종목으로 구성된다. 수익성과 배당성장률, 배당회복률을 기준으로 편입 대상 기업들이 선정되며, 예상 배당수익률을 기준으로 상위 20개 종목들로 최종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개별 기업들의 편입 비중 역시 예상 배당수익률 가중방식으로 결정(Cap Rate: 10%)된다. 콜옵션은 코스피200 기준 ATM 수준의 옵션이 커버드콜 포지션에 활용된다.

액티브 ETF이기 때문에 상관계수 0.7의 유지 조건 하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편입과 같은 포지션 조정 판단이 동반된다. 총 보수는 0.40%가 적용되는 ETF이다.



Global ETF 박승진 sj81.park@hanafn.com
RA 신민근 mingun.shin@hanafn.com

도표 1. TIGER 코스닥 액티브, ACE 고배당주Plus 커버드콜 액티브 ETF의 종목 개요

ETF명	TIGER 코스닥액티브	ACE 고배당주Plus 커버드콜액티브
상장일	2026년 6월 2일 화요일	2026년 6월 2일 화요일
비교지수	코스닥 지수	KRX-Akros 고배당주 20 위클리 고정 30% 커버드콜 지수
복제방법	실물(액티브)	실물(액티브)
1좌당 가격	10,000원	10,000원
총 보수	0.50%	0.40%
구성종목 수	1,800종목 ('26.4월말 기준)	22종목 (주식 20종목 + 콜옵션 2종목)
비중결정방식	시가총액 가중방식	- 주식(KRX-Akros 고배당주 20 지수) 100% : 예상배당수익률 가중방식 - 옵션 (Coverage Ratio) 30% : 코스피200 콜옵션
정기변경	- 정기변경: 해당사항 없음 - 수시변경: 신규상장종목(재상장종목 포함)은 상장 후 1매매거래일이 경과한 날에 편입	연 2회 (매 4, 10월)

자료: KRX, 하나증권

2026년 6월 1일 | Global Asset Research

Global ETF

Compliance Notice

본 조서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자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New K-ETF

200커버드콜 채권혼합, 만기연장 특수채 액티브

신규 상장 ETF(6/2)

- PLUS 200위클리커버드콜 채권혼합, 마이티 5월만기자동연장 특수채(AAA) 액티브

PLUS 200위클리커버드콜 채권혼합: 코스피200 지수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부분 커버드콜 전략 포트폴리오와 국채 포지션을 각각 50%의 비중으로 조합하는 채권혼합형 ETF이다.

코스피200 지수 기반의 커버드콜 전략의 경우 위클리 콜옵션을 활용해 주간 단위의 리밸런싱이 진행되는데, 코스피200 포트폴리오 명목금액의 약 20% 수준(ETF 전체 기준으로는 약 10%)까지만 옵션 매도 포지션을 구축하기 때문에 나머지 비중에 대해서는 코스피200 지수의 상승 과정에 동행할 수 있는 형태가 되겠다.

더불어 커버드콜 포지션에서 발생하는 분배금 재원과 코스피200 기업들에서 지급받는 주식 배당금을 합산하여 연 7% 수준(분배금 재원: 커버드콜 약 6% + 주식배당 약 1%)의 배당 지급을 목표로 추구(월배당)한다. 국내 파생상품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매차익은 비과세이기 때문에, 커버드콜 포지션에서 마련되는 분배금(배당) 재원은 과세가 되지 않는다.

채권 포트폴리오의 경우에는 최근월 3년 국채선물의 최종 결제 기준 채권들(3종목)을 편입하여 구성한다. 채권혼합형(안전자산) ETF로 분류되는 만큼, 퇴직연금 계좌에서 100%의 비중까지 편입이 가능한 종목이 되겠다.

코스피200 커버드콜 포트폴리오와 국채 포트폴리오의 50 대 50 비중 기준에 대해서는 매일 조정 작업이 진행되며, 코스피200 포지션은 매년 2회, 코스피200 콜옵션은 매주, 국채 포지션은 매 분기마다 리밸런싱을 진행한다. 총 보수 0.39%의 패시브 ETF이다.

마이티 5월 만기자동연장 특수채(AAA) 액티브: 5월을 전후하여 만기가 도래하는 국내 우량 특수채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만기 도래시 다음 해에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들을 새롭게 편입하여 다시 포트폴리오를 유지해 나가는 형태의 채권형 액티브 ETF이다.

비교지수인 'KAP 5월 만기자동연장 특수채(AAA) 총수익 지수'는 5월을 중심으로 만기가 4월에서 6월 사이에 도래하는 AAA 등급의 특수채 채권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특수채의 경우 통안채는 제외하고,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의 특수은행들이 발행한 금융특수채와 예금보험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공사 등의 특별법 기반 설립 기관들이 발행하는 비금융특수채를 편입 대상으로 한다. 거래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발행 잔액 500억원 이상의 기준도 함께 적용한다.

편입 채권들의 만기가 되면 다음 해 4월~6월에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들을 다시 편입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만기가 연장되는 형태의 1년 만기 특수채 채권 ETF로 볼 수 있겠다. 0.06%의 총 보수가 적용되는 액티브 ETF이다.



Global ETF 박승진 sj81.park@hanafn.com
RA 신민건 mingun.shin@hanafn.com

도표 1. PLUS 200위클리커버드콜 채권혼합, 마이티 5월만기자동연장 특수채(AAA) 액티브 ETF의 종목 개요

ETF명	PLUS 200위클리커버드콜 채권혼합	마이티 5월만기자동연장 특수채(AAA)액티브
상장일	2026년 6월 2일 화요일	2026년 6월 2일 화요일
기초(비교)지수	코스피 200 KTB 혼합 위클리 고정 10% 커버드콜 지수	KAP 5월 만기자동연장 특수채(AAA) 총수익 지수
복제방법	실물(패시브)	실물(액티브)
1좌당 가격	10,000원	100,000원
총 보수	0.39%	0.06%
구성종목 수	- 주식 200종목 - 채권 3종목 - 옵션 2종목	262종목 ('26년 2월말 기준)
비중결정방식	- 코스피 200 지수: 유동주식수 가중 시가총액방식 - KTB 지수: 동일액면가중방식 - 코스피 200 KTB 혼합지수: 매 영업일 두 지수 (코스피 200 지수 : KTB 지수)의 비중을 50% : 50%로 고정하는 방식으로 산출	시가총액 가중방식
정기변경	- 코스피 200 지수 : KOSPI 200 선물시장 6월 12월 결제월 최종거래일의 다음날 - KTB 지수 : 최근월종목의 최종거래일에 실시, 분기별로 3, 6, 9, 12월의 세 번째 화요일 - 코스피 200 콜옵션 : 매주 (최종거래일이 가장 먼저 도래하는 결제주 또는 결제월 거래)	- 연 1회 (매 6월 첫 영업일지수 편입대상 변경) - 일간 리밸런싱 진행신용등급 변동 및 부도 발생 시 익월 첫 영업일 또는 당일 편출

자료: KRX, 하나증권

2026년 6월 1일 | 산업분석_Update

Overweight

Top Picks 및 관심종목

*CP 2026년 5월 29일

NAVER (035420)

BUY | TP 350,000원 | CP 234,000원

크래프톤 (259960)

BUY | TP 460,000원 | CP 257,500원

NC (036570)

BUY | TP 420,000원 | CP 289,500원

AI/인터넷/게임

인터넷, 게임 기업의 국방 AI 진출

소버린 국방 AI 모델의 필요성 대두

국내 인터넷/게임 기업의 방산 AI 사업 진출이 활발하다. 크래프톤-한화에어로스페이스, NC AI-현대로템에 이어 NAVER가 국방 AX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미국이 이란 공습 당시 클로드를 사용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국방에서 AI의 중요성이 확인되었다. 문제는 대부분의 프론티어 AI 모델은 미국, 중국이 갖추고 있어 국내의 경우 활용이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즉 소버린 국방 AI 모델 개발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국내에서도 개발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자체 LLM 모델 개발 역량을 보유한 NAVER, 게임 엔진을 비롯한 AI 역량을 내재화하던 크래프톤, NC가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글로벌 대비 후발주자이기에 각 기업이 경쟁적으로 시장을 구성하기보다는 기능을 분담하여 통합하는 방식으로 구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사업화 과정에서 NAVER는 피지컬 AI 연구 기간, 실증 사례, 클라우드 역량이 기업 가치에 반영되어 있지 않기에 단기간에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며, 크래프톤/NC는 본업의 증명 이후 점차 반영될 것으로 전망한다.

NAVER: 예고되었던 진출

NAVER는 6월 1일자로 국방 AX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AI 모델 및 사업 개발을 맡아 국방 특화 AI 모델 개발과 사업화를 동시에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NAVER는 지난 10월 엔비디아와의 협력을 통해 현실 공간과 디지털 공간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차세대 피지컬 AI 플랫폼을 공동 개발하여 국가 핵심 산업과 일상 전반을 아울러 국가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소버린 AI 2.0 비전을 발표했다. 또한 동시에 CEO 직속 R-TF(Revolution Task Force)을 신설, 연구에 머물러있던 기술 자산을 글로벌 B2B·B2C 사업으로 확장하기 시작했다. 이번 국방 AX 역시 해당 비전의 일부로 보이며 NAVER가 보유한 현실 세계 데이터, AI 모델 개발 및 디지털 트윈 역량,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주도적인 움직임이 예상된다.

크래프톤-한화에어로스페이스, NC AI-현대로템: 가상 시뮬레이션을 현실로

크래프톤은 지난 3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피지컬 AI 분야 전략적 동맹 구축, 방위산업 포함 다양한 영역에서 기술 공동 개발 및 사업화를 추진하는 MOU를 체결했다. 합작법인(JV)을 설립하여 크래프톤의 AI 연구 역량과 소프트웨어 개발 기술에 한화그룹이 보유한 방위산업 및 제조업 분야의 산업 인프라를 결합할 계획이다. 미국 방산 스타트업 '안두릴'을 목표로 한다. 안두릴은 오클러스 VR의 창업자 팔머 렉키가 2017년 설립한 기업이다. AI 기반 자율 무기시스템 등 첨단 방산 OS를 보유했다. 미국 방산 기업인 록히드마틴이 게임 엔진을 활용해 훈련, 실증을 진행한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져 있다.

NC AI는 5월 28일 현대로템과 컨소시엄을 구성, 국방과학연구소가 발주한 피지컬 AI 기반 통합 시뮬레이터 및 모듈형 로봇 시스템 R&D 사업의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 NC AI는 피지컬AI의 두뇌 역할을 하는 월드모델 개발을 총괄한다. 지난 3월 월드 파운데이션모델 연구 성과를 발표하며 피지컬 AI 시장에 진출을 선언한 바 있다.

양사 모두 초기 단계이지만 사업화까지 충분히 진행 가능한 영역이라고 판단한다.



Analyst 이준호 junholee95@hanafn.com

지나친 소외

은행 Weekly | 2026.6.1

Analyst 최정욱, CFA cuchoi@hanafn.com

RA 정소영 soyoungjung@hanafn.com

전주 은행주 대폭 초과하락. 금통위의 금리 인상 시그널에도 소외 현상 가속화됐으며 포용금융 뉴스플로우화도センチ멘트를 약화

- 전주 은행주는 5.3% 하락해 KOSPI 상승률 8.0%를 대폭 초과하락했다. 젠스항 방한 소식으로 AI플랫폼과 로봇사업에 대한 관심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반도체와 더불어 젠스항 방한 관련주들이 급등한 반면 그 외 업종들은 대부분 주가가 약세를 보였으며 은행주는 금통위의 금리 인상 시그널에도 불구하고 시중금리가 하락하면서 소외 현상이 가속화되었다. 이란 휴전안이 트럼프의 결단만 남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유가가 하락했으며 글로벌 금리 또한 하락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포용금융이 계속해서 뉴스플로우화되면서センチ멘트가 약화되고 있는 점도 은행주 약세의 배경이다
- 지난주 미국 국채금리는 이란과의 휴전안 합의에 대한 기대감으로 하락세로 전환했다. 국내 국채금리는 매파적 금통위로 인해 단기물은 상승했지만 글로벌 금리 하락 현상 동조화로 인해 장기물은 하락했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1,500원선에 갇힌 모습이었다. 외국인이 KOSPI를 지속적으로 매도하고 있는데다 이란과의 종전 협상 관련 불확실성도 일부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1,504.8원으로 마감해 한주간 12.8원 하락했다

금통위 우리 예상대로 더 매파적인 스탠스. 금리 중장기 우상향 방향성 예상. 분명 은행주 주가에 우호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

- 5월 한은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시장 예상보다 더 매파적인 스탠스가 나올 것이라는 우리 예상에 정확히 부합했다. 한은 총재는 물가성장·환율·부동산 어디를 보나 갈 길이 명확하다고 발언했으며, 6개월 후 금리 전망 3.25%에도 점이 2개 찍히는 등 점도표도 크게 상향했다. 소수의견 2명 출현과 더불어 금리 인상 당위성에 대해서도 금통위원들간 이견이 없는 상태임을 명확히 밝힌 만큼 7월 금통위에서는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 경제성장 기대와 확장재정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감안시 글로벌 금리에 연동되어 일시적으로 국내 채권금리가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중장기 우상향 방향성을 예상한다. 금리 상승기에 은행주 주가가 강세를 보여왔다는 점에서 금리는 분명 은행주 주가에 우호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한다

초과하락 폭 오히려 확대 중인 은행주. 뚜렷한 모멘텀 약하지만 펀더멘털 괜찮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지나친 소외 현상으로 판단

- 올해 들어 KOSPI 지수가 101%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주는 15% 상승에 그쳐 5개월동안에만 86%p underperform 중이다. 계속되는 포용금융 관련 뉴스플로우화에 따른センチ멘트 약화 요인 외에 특별한 이슈는 없으며, 펀더멘털은 계속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KOSPI내 쏠림현상 장기화에 따른 수익률 제고를 위해 보험사·자산운용 등 국내 기관마저 은행주 순매도에 가담하면서 초과하락 폭 오히려 확대 중이다
- 주가 반전을 위한 모멘텀 발생이 절실하지만 2분기 실적 발표 전까지는 PBRI 수익성 대비 저평가되어 있다는 가격 요인 외에 이렇다할 뚜렷한 모멘텀 요인도 부재인 상황이다. 호재가 만발한 반도체 등 주도업종들로 시장의 관심이 쏠릴 수 밖에 없는 점을 이해는 하지만 은행주도 펀더멘털이 괜찮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다소 지나친 소외 현상으로 판단한다
- 결국 현 시점에서 은행주는 수급의 키를 쥐고 있는 외국인이 돌아와야 의미있는 반등이 가능한데 전제조건은 원/달러 환율 안정화, 건전성 관련 우려 해소 등일 것으로 판단한다. 시간이 걸릴 뿐이지 지나친 소외 현상은 결국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지방선거 이후 밀려 있던 정책 이슈 수면위 부상 예상. 시장 분위기 변화 요인 발생시 소외업종 중에서는 은행주 관심 확대 예상

- 금주 지방선거 이후에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논의 등 그동안 밀려 있었던 정책 이슈들이 수면 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 미국과 이란의 합의 여부 등도 주요 관전포인트이다. 만약 향후 시장 분위기 변화 요인이 발생한다면 소외 업종들 중에서는 은행주에 대한 관심이 먼저 확대될 수도 있다고 판단한다

금주 은행 주간 선호 종목으로 하나금융(매수/TP 157,000원)과 우리금융(매수/TP 43,000원)을 제시

글로벌 친환경차/2차전지 Monthly

2026년 4월 EV +10%. 미국 전기차 판매 둔화 지속 | 2026.6.1



투자 의견

Overweight

자동차 Analyst 송선재 sunjae.song@hanafn.com

2차전지 Analyst 김현수 hyunsoo@hanafn.com

RA 홍지원

전기차: 4월 글로벌 전기차 증가율은 +10% (YoY)

- 글로벌** • 4월 171.6만대(+10% (YoY)). BEV/PHEV 125.7만대/45.9만대(+20%/-10%)
- 미국** • 4월 8.6만대(-35% (YoY)). BEV/PHEV 7.5만대/1.1만대(-26%/-64%)
• 4월 판매대수 1위/2위는 테슬라의 모델Y/모델3로 각각 2.05만대/1.00만대
- 중국** • 4월 98.9만대(Flat (YoY)). BEV/PHEV 71.2만대/27.7만대(+11%/-20%)
• 4월 판매대수 1위/2위는 Geely의 Star Wish/Xiaomi의 SU7로 각각 3.47만대/2.68만대
- 유럽** • 4월 40.3만대(+27% (YoY)). BEV/PHEV 27.8만대/12.5만대(+33%/+16%)
• 4월 판매대수 1위/2위는 스키타의 ELROQ, 테슬라의 모델Y로 각각 1.05만대/1.85만대
- 한국** • 4월 4.0만대(+123% (YoY)). BEV/PHEV 3.9만대/0.1만대(+135%/-31%)

2차전지: 글로벌 4월 배터리 출하 +24%(YoY), CATL 1위

- 출하량** • 4월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출하량은 +24%(YoY) 증가한 105.7GWh를 기록. 업체별 출하량은 CATL 41.9GWh(+29%), BYD 15.9GWh(+7%), LGES 7.7GWh(+6%), CALB 6.0GWh(+45%), SK on 3.3GWh(Flat), Panasonic 2.9GWh(-23%), 삼성SDI 1.6GWh(-34%)
• 4월 LFP 배터리 침투율은 글로벌 59.1%로 전월 대비 +6.2%p 상승
- 원재료 동향** • 주 원재료 가격 동향: 리튬/니켈/코발트/망간/구리/알루미늄/LiPF6 가격은 3월 +8%/-0%/-0%/+1%/-3%/+10%/-14%(MoM), 4월 +4%/+5%/+0%/+2%/+3%/+7%/-10%(MoM)

전기차(BEV+PHEV) 주요 지표 (2026년 4월)

(단위: 대, %)

지역	4월	YoY	누적(1-4월)	YTD
글로벌	1,716,029	+9.9	5,889,303	+2.3
미국	86,134	-35.2%	337,372	-33.7
중국	989,357	-0.2%	3,123,802	-12.2
유럽	403,278	+27.1%	1,560,241	+27.3
한국	39,834	+122.9%	130,216	+131.7

주: 소매판매 기준 / 자료: SNE Research, 하나증권

전기차 배터리 출하량 업체별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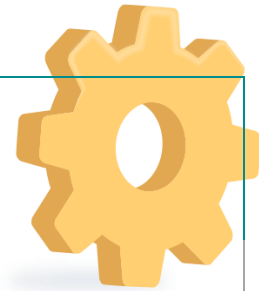
(단위: GWh, %)

월 순위	업체명	4월	YoY	점유율	누적순위	누적	YoY	점유율
	Total	105.7	+23.5			352.7	+13.8	
1	CATL	41.9	+29.1	39.6	1	141.4	+18.9	40.1
2	BYD	15.9	+7.1	15.1	2	50.0	-2.4	14.2
3	LGES	7.7	+5.9	7.3	3	32.0	+8.3	9.1
4	CALB	6.0	+45.3	5.7	4	18.1	+39.0	5.1
5	SK on	3.3	-0.1	3.1	5	12.3	-7.9	3.5

자료: WardsAuto, CPCA, EV-sales, ACEA, KAMA, 현대차, 기아차, SNE Research, 하나증권

시사점 및 의견: 셀 메이커들의 실적 증가세에 주목

- 2차전지** • 2026년 4월 유럽 전기차 배터리 출하는 22.1GWh로 전년 동월 대비 +33% 증가. 반면, 국내 3사(LGES, 삼성SDI, SK on)의 유럽 출하량은 각각 3.5GWh(YoY +25%), 1.0GWh(YoY +3%), 1.7GWh(YoY -2%) 기록. 3사 모두 시장 성장을 하회. 유럽 내 한국 3사 합산 시장 점유율 사상 처음으로 30% 붕괴되며 부진 지속. 다만 LGES 출하량이 지난 3월, 2023년 10월 이후 최대폭 증가하며 시장 성장률에 근접한 이후 이번 달에도 +25% 증가하며 상대적으로 고성장세 지속되었다는 점은 긍정적. 향후 유럽 산업가속화법안(IAA) 구체화 과정에서 LGES를 포함한 한국 기업들의 유럽 공장 가동을 상승 가능할 것으로 판단. 현재 LGES와 삼성SDI의 유럽 CAPA가 최근 2년 사이 약 15% 감소한 상황에서 유럽 시장 회복 시 가동을 상승에 따른 레버리지 효과 확대될 것으로 판단. 미국 유포 CAPA의 ESS 전환에 따른 가동률 상승 및 AMPC 수취 효과 맞물리는 상황에서 향후 셀 메이커들의 실적 증가세 뚜렷할 것으로 판단. 셀 메이커 중심의 배터리 섹터 비중확대 의견 유지



중국 정부 광물자원법 시행 규정 발표

철강금속 Weekly | 2026.06.01

Analyst 박성봉 sbpark@hanafn.com

RA 김승규 sgkim@hanafn.com

주간 동향

철강금속 주요 지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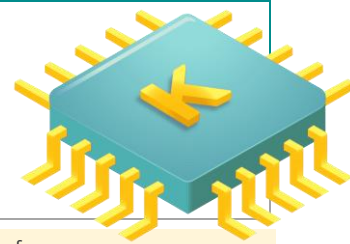
- 국내 철강가격(원/톤)
열연 유통가: 96만원(WoW, +1.1%), 열연 수입유통가: 92만원(WoW, 0.0%), 철근 유통가: 88만원(WoW, +1.1%), 후판 유통가: 98만원(WoW, 0.0%)
- 해외 철강가격(달러/숏톤, 위안/톤) (1 Short Ton=907kg)*
미국 열연 유통가: 1,088달러(WoW, +1.6%), 중국 열연 유통가: 3,411위안(WoW, -0.1%), 중국 냉연 유통가: 3,840위안(WoW, -0.2%), 중국 철근 유통가: 3,335위안(WoW, +0.1%)
- 원재료 가격(달러/톤, 원/톤, 달러/톤)
중국 철광석 수입가: 105.6달러(WoW, -1.4%), 한국 스크랩가: 47.6만원(WoW, +2.1%), 호주 원료탄(FOB): 241달러(WoW, 0.0%)
- 주요 비철금속(LME) 및 귀금속 가격(달러/톤, 온스)
전기동: 13,615달러(WoW, +0.5%), 아연: 3,518달러(WoW, -0.3%), 연: 2,008달러(WoW, -0.8%), 니켈: 18,867달러(WoW, +0.8%), 금: 4,561달러(WoW, +0.8%), 은: 75.9달러(WoW, 0.0%)

- 국내 철강 유통가격: 타이트한 수급과 가격 인상 정책 반영되어 판재류 가격 반등. 철근 가격은 강세 기조 지속
- 중국 철강 유통가격: 비수기 돌입에 따른 중국내 수요 둔화 우려와 재고 증가 등으로 약세 지속
- 산업용 금속가격: 뚜렷한 방향성 없이 금속 별로 차별화. 미-이란 종전 기대감에 따라 가격 수시로 변화

철강금속기업 주가 동향

- 국내 철강금속기업
POSCO홀딩스: 42.35만원(-5.4%), 현대제철: 4.02만원(-3.4%), 세아베스틸지주: 5.35만원(-14.9%), 고려아연: 137.3만원(-4.0%)
- 해외 철강기업(자국 통화)
BAO STEEL: 6.03위안(+2.2%), A. MITTAL: 59.32유로(+4.5%), NSSMC: 566.6엔(+2.4%), TATA STEEL: 208.90루피(-0.1%), NUCOR: 250달러(+7.8%)
- 총평: 글로벌 철강사들 주가 국가별로 차별화. 자국내 철강가격 상승으로 미국, 유럽 철강사들 2주 연속 급등

모두의 눈과 귀가 집중될 Nvidia GTC



반도체 및 소부장 Weekly | 2026.6.1

Analyst 김록호 roko.kim@hanafn.com

RA 김영규 kyg1019@hanafn.com

데이터 포인트 및 주간 리뷰: 메모리 업체들 주가 상승 속에 삼성전자의 언더퍼폼

- 지난 주 Nvidia에 이어 Marvell의 실적 발표를 통해 AI 데이터센터 관련 긍정적 분위기가 이어졌다. 양호한 실적 및 긍정적 가이드언스를 제시했는데, 광 인터커넥트/스위칭 등의 데이터센터 관련 매출액이 긍정적으로 보여진다. Marvell은 Nvidia의 협업을 통해 연초 이후 주가 상승폭이 141%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내에서도 다섯 손가락 안에 든다. 앞으로도 NVLink Fusion 통합, 광학 파트너십, AI-RAN 등의 세가지의 핵심 축을 중심으로 Nvidia와의 협업 강화 및 실적 성장이 기대된다. 앞으로도 Nvidia 뿐만 아니라 통신 및 광학 관련 업체들의 실적은 주목해야 한다.
- 코스피 지수는 8.0% 상승하면서 2주 연속 상승했다. 삼성전자는 8.4%, SK하이닉스는 20.2% 상승하면서 지수 대비 아웃퍼폼을 지속했다. SK하이닉스의 상승폭이 1주 만에 삼성전자를 다시 상회했다. ETF 특성상 개별 종목을 25%까지 채울 수 있는데, SK하이닉스 비중이 삼성전자보다 여유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SK하이닉스의 비중도 25% 근처까지 온 만큼 앞으로는 SK하이닉스 주가 상승폭도 삼성전자를 아웃퍼폼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동일한 메모리 업황 상에서 삼성전자의 언더퍼폼 지속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 코스닥 지수는 7.4% 하락하면서 1주 만에 하락 전환했다. 하나증권 커버리지 종목들 역시 대부분 하락 마감했다. 코스피 대형주로의 쏠림이 심화되면서 코스닥 종목들의 언더퍼폼이 두드러졌다. 테스와 브이엠은 각각 7.7%, 8.7% 하락하면서 커버리지 내에서 상대적으로 선방했다. 글로벌 메모리 업체들의 CAPEX 규모가 예상치를 상회하고 있는 가운데 양호한 실적과 부담 없는 밸류에이션이 주가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전망 및 전략: 메모리의 긍정적 분위기 지속, 소부장도 저가 매수 고민 필요

- 2026년 대만 Computex(6월 2~5일)와 동시 진행되는 NVIDIA GTC(6월 1~5일)는 올해 가장 큰 AI 테크 이벤트 중 하나다. 테마는 "AI Together"로, AI & Computing, Robotics & Mobility, Next-Gen Tech를 중점으로 다룰 예정이다.
- 그 중에서도 단연 6월 1일 진행될 젠슨황 키노트가 가장 주목받을 것으로 판단된다. "New Era of PC"를 강조하며 Microsoft와 공동 티징을 예고한 만큼 N1 / N1X Arm SoC 관련 소식이 들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해당 CPU는 Windows on Arm 기반 고성능 노트북 칩으로 RTX 5070급 iGPU와 강력한 NPU를 탑재해 로컬 AI(Agentic AI) 성능을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아울러 Vera Rubin 관련 추가 업데이트 및 세부 사양 소식도 기대되며, 대만에서의 행사인 만큼 TSMC를 필두로 관련 서플라이체인 관련 언급으로 긍정적 추가 반응이 예상된다. 메모리 관련 중요성 역시 재차 강조될 것으로 예상되어 국내 업체들의 추가에도 긍정적 영향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표 1. 반도체 주요 종목 Valuation / Performance / 수급 동향

기업/지수	시가총액 (십억원)	종가/지수	주가 수익률			주간 순매수 (십억원)			PER (배)		PBR (배)	
			1W	1M	YTD	기관	외국인	개인	26F	27F	26F	27F
코스피	6,733,678	8,476	8.0	26.7	101.1	2,891.5	-6,081.7	3,099.8	9.3	7.4	2.2	1.7
코스닥	600,430	1,075	-7.4	-11.9	16.1	-966.7	779.4	328.6	32.7	23.3	3.7	3.3
삼성전자	1,853,270	317,000	8.4	40.3	164.4	2,054.3	-2,395.6	321.2	7.4	5.8	3.0	2.0
SK하이닉스	1,662,735	2,333,000	20.2	80.4	258.4	2,250.1	-3,318.2	1,048.6	7.8	5.9	4.8	2.6
주성엔지니어링	9,296	200,000	-10.7	58.9	622.0	-99.5	-102.0	204.7	143.8	69.1	14.0	11.6
피에스케이	2,853	98,500	-15.7	5.6	166.9	-38.5	26.0	12.4	22.7	17.5	4.4	3.5
테스	2,306	119,100	-7.7	37.5	167.3	30.7	-21.6	-9.0	25.4	20.2	4.6	3.8
피에스케이홀딩스	2,299	106,600	-22.3	-18.3	130.2	-32.7	23.8	9.4	19.1	13.8	3.8	3.1
파크시스템스	1,929	275,500	-5.2	-4.0	31.8	-3.9	10.8	-6.7	34.8	27.6	6.5	5.6
브이엠	1,459	58,900	-8.7	2.6	95.0	-14.5	43.4	-24.1	18.1	13.7	5.9	4.1
씨엠텍스	1,025	106,200	-13.4	-26.8	6.3	-10.1	3.1	6.7	16.0	12.6	4.5	3.2
원익머트리얼즈	538	42,700	-10.4	-21.4	38.2	-3.3	0.0	3.2	9.1	6.6	0.9	0.8

자료: 하나증권

First Solar, 주가 18년래 최대

에너지/화학 Weekly Monitor | 2026.06.01



Analyst 윤재성 js.yoon@hanafn.com

RA 김형준 do200508@hanafn.com

Weekly Issue: First Solar, 주가 18년래 최대

• 총평

- WTI 87.4\$(-10%), Dubai 103.7\$(-0.3%). 정제마진 22.3\$(WoW -9.7\$). 유럽 디젤 선물 WoW -11%
- 납사 -14% vs. 톨루엔 -8%, LDPE -7%, SM/아세톤/에폭시/ECH -6%, 에틸렌/ABS -5%. 납사/제품가 전반 하락
- First Solar 주가 18년래 최대치 기록. 1Q26 호실적 및 Section 232 기대감 등이 반영된 결과. Top Picks OCI홀딩스, 한화솔루션

• First Solar, 주가 18년래 최대

- **First Solar 역사적 신고가 임박:** 5/29일 주가는 306\$로 과거 역사적 신고가 2008년 5/16일 311\$에 임박하며 18년래 최대치 기록. 1Q26 호실적 및 일부 투자 의견 상향, Section 232 기대감 등이 반영된 결과. 1) 2026년 2/24일 4Q25 실적 발표에서 말레이/베트남 7GW 공장에 대한 Capa를 조정하면서 연간 매출액 가이드를 크게 하향하며 주가가 크게 하락했으나, 2026년 4/30일 1Q26 실적 발표에서는 EBITDA와 EPS가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면서 긍정적 펀더멘털을 시현 2) GLJ 리서치에서 투자 의견을 Hold에서 BUY로 상향. 수요 강세와 중국 공급망 규제 강화에 따른 희소성 부각을 근거로 제시 3) Section 232 발표 시점을 6월 말 이전으로 예상한다는 업계의 기대감에 따라 박막형 CdTe 기반의 First Solar가 중국 결정질 실리콘 공급망과 가장 덜 엮여 반사 수혜 가능성이 부각
- **Section 232란:** 미국 무역확장법에 따라 특정 수입품이 미국 국가안보를 해치는 경우에는 상무부가 조사하고 대통령이 관세/쿼터/수입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규제. 태양광과 관련된 Section 232는 폴리실리콘과 그 파생제품(polysilicon and its derivatives) 조사. 상무부 장관이 2025년 7/1일 조사를 개시했고, 업계에서는 2026년 6월 말 이전에 조사 결과가 발표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음. AD/CVD는 보조금 수령 여부와 덤핑 여부 등 불공정 거래 여부를 따지는 도구이나, Section 232는 국가안보 위험 여부를 따지는 더욱 전략적이고 정치적이며 장기 존속이 가능한 규제. AD/CVD는 중국이 다양한 우회 루트를 통해 타개할 방법이 있으나, Section 232는 그보다 상위인 폴리실리콘과 그 파생상품을 대상으로 하기에 실질적으로 중국과 관련된 공급망 밸류체인 전체를 규제할 수 있게 됨
- **Section 232 발표 시점에 대한 업계의 시각:** First Solar는 1Q26 실적 발표 컨콜에서 Section 232 발표 시점을 6월 말 이전으로 예상한다고 언급. 5/28일 미국 태양광 업체 TOYO Solar의 컨콜에서도 발표 시점을 6월 중순~하순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 Section 232와 AD/CVD는 미국 태양광 제조업체들과 정부 간의 로비 활동을 바탕으로 추진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두 회사의 발언은 단순 추정이라기보다 현재 진행 중인 정책 논의 과정에서 파악한 업계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 가능. 쿼터제에서 최저가격제 도입 등 여러 방법들이 제기되고 있으나, 중국산을 규제한다는 방향성은 동일
- **Section 232 관세율에 대한 업계의 의견:** Intertek CEA 애널리스트들은 Base Case로 수입 폴리실리콘에 10\$/kg, 잉곳/웨이퍼에는 7 cent/W, 셀에는 10 cent/W, 모듈 완제품에는 20 cent/W 관세 부과 가능성을 제시
- **Base Case 가정 시 미국 공급망 영향:** 중국 Top Tier인 Daqo의 Cash Cost 약 4.6\$/kg, 상위 업체 평균 범위 5~6\$/kg을 감안하면 Section 232에 의한 10\$/kg 및 기타 관세 등 감안 시 Cash Cost 12\$/kg에 불과한 한국 OCI홀딩스의 상대적 경쟁력 크게 부각. 폴리실리콘 10\$/kg 관세는 +2 cent/W 효과이며, 웨이퍼 +7 cent/W까지 합치면 +9 cent/W 원가 상승 효과. 이는 현재 미국 모듈 가격 약 30 cent/W 대비 +30% 효과. 셀/모듈 합산 관세 +30 cent/W까지 감안 시 이론적으로 중국계 결정질 실리콘을 사용한 모듈은 현재 가격 대비 +39 cent/W(+130%) 상승하며 경쟁력 상실. 대체재로 미국 First Solar 및 한화솔루션 모듈의 경쟁력 강화. 이 과정에서 미국 모듈 가격 또한 전반적으로 상승 불가피
- **Section 232 발표 이후 지켜볼 리스크 요인:** 1) 중국 결정질 실리콘계 모듈이 제외되면서 미국 내 태양광 공급망 부족 및 가격 상승으로 태양광 설치량이 예상을 하회할 가능성 2) Section 232가 강하게 확정될 경우, 중국은 태양광 셀/모듈 생산 장비에 대한 반출 금지 조치를 강화할 수 있음. 실제 Maxwell Technologies 등 중국 태양광 장비 업체들은 이번 가을 이전에 테슬라가 태양광 밸류체인을 구축 중인 텍사스 브룩셔(Brookshire)로 장비 납품 통보를 받았으나, 중국 상무부의 수출 승인이 난관이 되고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머스크는 이번 미중 협상에서 중국 업체들을 컨택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이어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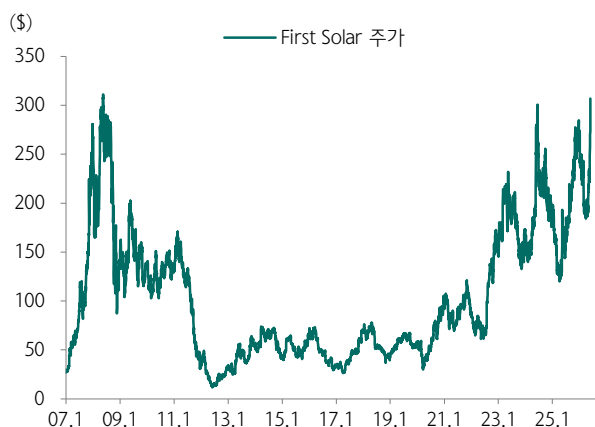
(이어서 계속)

- 결론: 1) 미국 First Solar 역사적 신고가 임박 2) 6월 말 이전 Section 232가 확정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 영향 3) Section 232 확정 시, 국제 결정질 실리콘을 사용한 모듈은 이론적으로 Max +130% 가격 상승 가능. 이 과정에서 미국 모듈 가격 또한 전반 강세 가능성 4) 미국 태양광 설치량 둔화 리스크는 있으나, 중국 공급망과 무관한 OCI홀딩스, 한화솔루션 수혜 가능 5) 향후 지켜볼 리스크는 미국 태양광 모듈 부족 현상 및 가격 상승에 따른 설치량 둔화 리스크, 그리고 테슬라의 중국 장비 반입 이슈에 따른 증설 속도 둔화 가능성

• 종전 기대감 지속: 에너지 산업 Update(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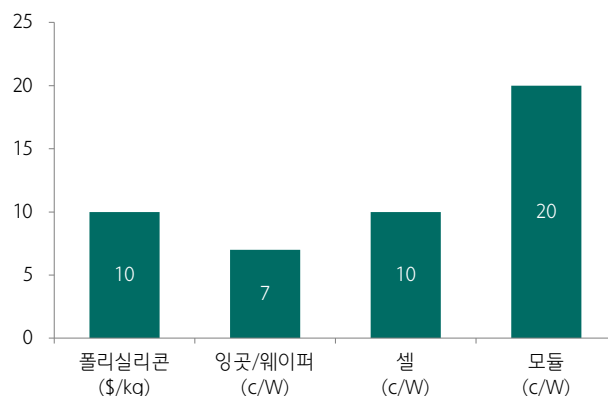
- 석유: WTI 87.4\$(-10%), Dubai 103.7\$(-0.3%). 정제마진 22.3\$(WoW -9.7\$). 유럽 디젤 선물 WoW -11%
- 가스: 아시아 JKM -5%, 유럽 TTF -6%. 미국 Henry Hub +13%
- 석유화학: 납사 -14% vs. 톨루엔 -8%, LDPE -7%, SM/아세톤/에폭시/ECH -6%, 에틸렌/ABS -5%. 납사/제품가 전반 하락

도표 1. First Solar 주가 18년래 최대치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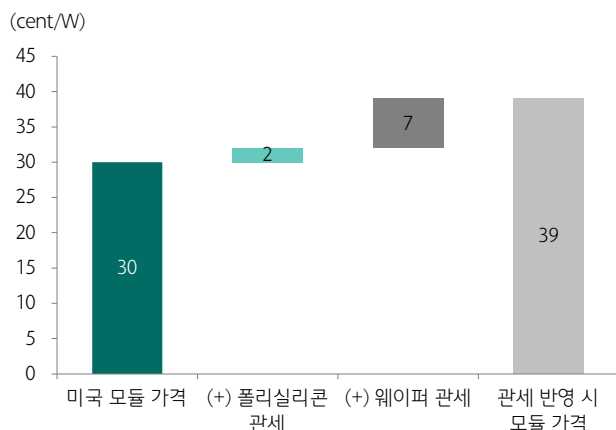
자료: Intertek CEA, 하나증권

도표 2. 태양광 밸류체인별 Section 232 관세 예상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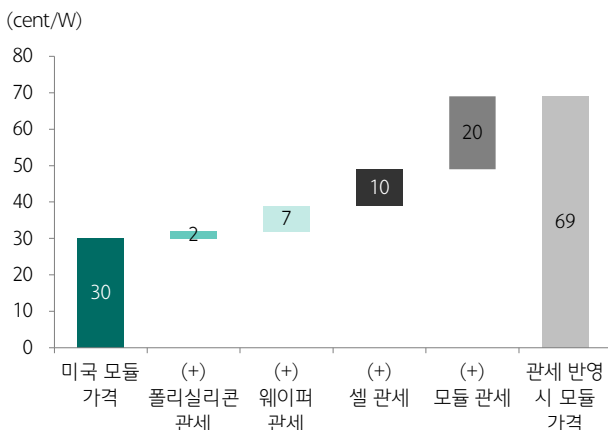
자료: Intertek CEA, 하나증권

도표 3. 폴리/웨이퍼 관세는 +9 cent/W 원가 상승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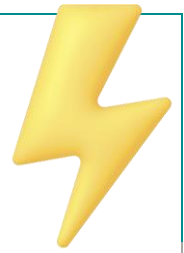
자료: Intertek CEA, 하나증권

도표 4. 셀/모듈 관세까지 감안 시 이론적으로 모듈 가격 +130% 상승



자료: Intertek CEA, 하나증권

Grid에서 On-site 발전 사업자로 확장되는 비즈니스 모델



2차전지 Weekly < 이배속(이번주 배터리 속이야기) | Overweight | 2026.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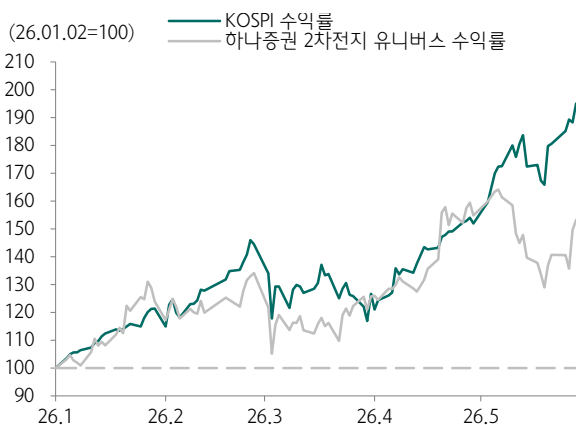
Analyst 김현수 hyunsoo@hanafn.com

RA 홍지원 jiwonhong@hanafn.com

데이터 포인트 해석 및 투자 전략 : 대형주 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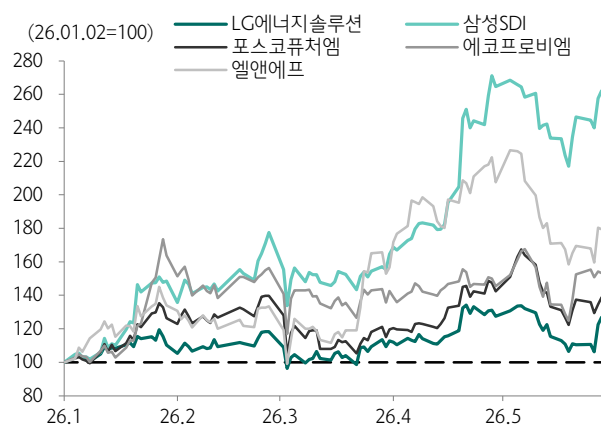
- 데이터센터 확산에 따른 ESS 수요 증가 논리는 크게 두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는 Grid다. 미국은 전력 수요 급증에도 불구하고, 송배전 병목으로 인해 실제 가용 전력의 상당 부분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실효 가동률 46%). ESS는 송전망 증설 이전에 전력망 효율을 높이는데 기여하며 유틸리티 중심의 설치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현재 LGES 수주잔고 중 Grid 비중 95%).
- 두 번째는 On-site 발전 수요다. AI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가 폭증하면서 하이퍼스케일러들은 전력회사의 Grid 구축 및 송배전 연결을 기다리지 않고 직접 발전설비와 ESS 확보에 나서고 있다. 과거 ESS 시장의 고객군이 전력회사, IPP, 재생에너지 개발사였다면 이제는 Oracle, Microsoft, Amazon, Google 등 하이퍼스케일러가 ESS 구매 주체로 등장하고 있는 모습을 목도하고 있다.
- 실제 Fluence Energy는 최근 FY26 2Q 실적발표에서 글로벌 주요 하이퍼스케일러 2곳과 Master Supply Agreement(MSA)를 체결했다고 공개한 바 있다. 회사는 데이터센터 관련 ESS 파이프라인 규모가 약 12GWh 수준까지 확대됐으며, 대부분이 해당 하이퍼스케일러 계약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연초 이후 수주 규모는 약 20억달러(+100% YoY), 수주잔고는 사상 최대인 56억달러를 기록했다. 이와 함께 최소 한 건 이상의 하이퍼스케일러 관련 프로젝트가 3분기 내 실제 발주로 전환될 것으로 언급했다.
- 지난주에는, LGES가 DTE Energy를 통해 Oracle의 미시간 데이터센터 향 2년 수주 계약을 체결하며 유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2026년 말부터 2년간 누적 6GWh의 ESS 배터리 공급 예정이며, 매출 규모는 2.4조원이다. 계약 규모 고려할 때 단순 배터리 납품을 넘어 ESS 유지보수 및 소프트웨어 운영까지 통합한 턴키 수주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2022년 설립한 SI 자회사 Vertech를 통해 향후 ESS 매출 규모 및 수익성 확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
- 어떤 산업이든 새로운 고객군이 등장할 때 실적 및 Valuation factor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ESS 산업 역시 기존 전력회사/재생에너지 개발사 중심 시장에서 하이퍼스케일러 시장으로 고객층이 확대되는 초입 단계에 들어섰다. 이번 LG에너지솔루션의 수주는 향후 유사한 형태의 계약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드러내는 사례라고 판단한다. 미국에서 ESS 배터리 공급 본격적으로 시작한 셀 메이커(LGES, 삼성SDI)에 대한 매수를 권고한다.

도표 1. KOSPI 대비 2차전지 섹터 수익률



자료: 하나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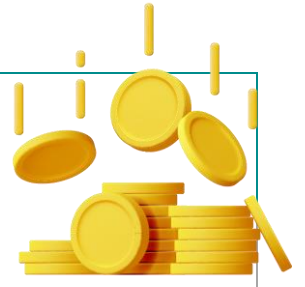
도표 2. 주요 업체 주가 추이



자료: 하나증권

불확실성 재차 확대. 제도권 편입 지속

디지털자산 Weekly 온체인(On-Chain) | 2026.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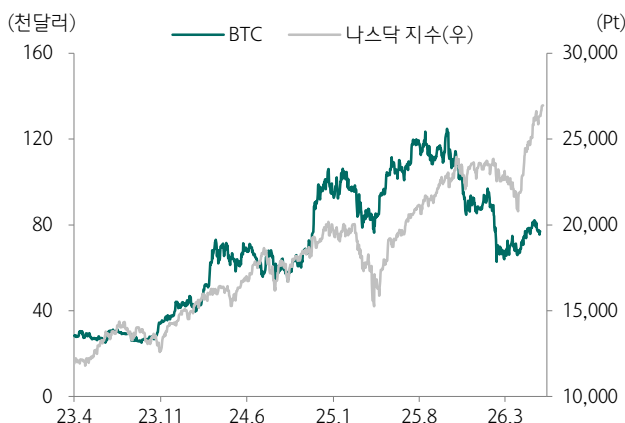


Analyst 이준호 junholee95@hanafn.com

디지털자산 및 관련 기업 총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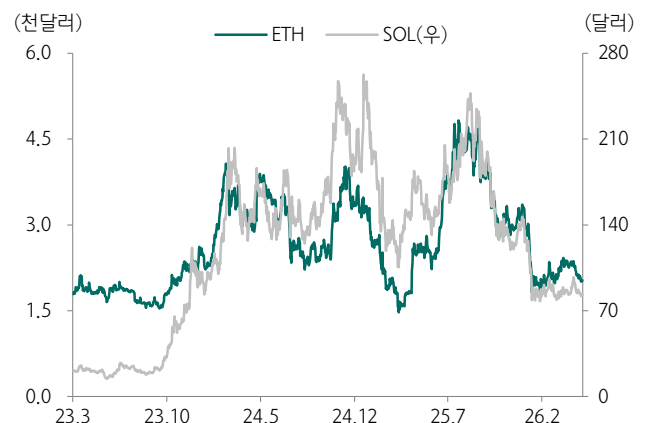
- 디지털자산 시장은 5/25~5/30 동안 정책 기대감이 불확실성으로 바뀌며 소폭 약세 흐름을 보였다. 주요 코인의 수익률은 BTC -3.9%, ETH -3.3%, SOL -5.4%, TRX +2.4%다. 특이사항으로는 최근 HYPE의 강세와 맞물려 거래소 코인인 BNB가 +12.0%를 기록한 점이다. 올해 DEX인 하이퍼리퀴드의 점유율 확보와 함께 네이티브 토큰 HYPE가 지난 3주간 +70% 이상 상승했다. 현재 디지털자산 시장은 신뢰 확보를 통한 블록체인 가치 상승보다 실제 유틸리티 수요에 기반한 수익성을 가격에 반영해 주는 모습이 확인된다.
- 클래리티 액트가 Markup 이후에도 불확실성이 재확산되고 있다. JPM의 CEO 제이미 다이먼은 클래리티 액트가 법적 보호, 자금세탁 방지 규정 및 은행 비밀법 요건 측면에서 충분하지 않으며, 은행들이 현재 형태의 법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자산 업계의 코인베이스, 갤럭시 디지털 등이 즉각 반발하며 노이즈가 확산되는 모습이다. 클래리티 액트는 상원 본회의에서 60표가 필요하기에 공화당 53석으로는 부족하며 민주당 7석 이상의 초당적 입법이 있어야 통과가 가능하다. Markup 과정에서 민주당 2석의 표를 얻어 15대 9로 가결되어 낙관론이 확대된 상황이지만 입법 과정에서 디지털자산업계와 은행의 이권 다툼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 이번 주 글로벌 디지털자산 기업 중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기업은 Robinhood(HOOD)다. 주간 +28.1%라는 수익률을 기록했다. 핵심 강세 요인은 실적 숫자보다 Robinhood를 디지털자산, 토큰화 시대의 유통 플랫폼으로 재평가하는 흐름이다. Robinhood는 27일 AI 에이전트 트레이딩 플랫폼을 개설했다. 사용자가 AI 에이전트를 MCP에 연결하여 주식을 매매할 수 있게 된다. 주식을 시장으로 옵션, 디지털자산, 선물 및 예측 시장에도 적용할 예정이다.
- 29일 CFTC가 Kalshi의 비트코인 무기한 계약 선물 상품을 승인했다. 또한 코인베이스의 해외 디지털자산 마진 거래에 대해 No-action Letter를 발행했다. 이번 결정으로 역외에서 성행하던 디지털자산 무기한 계약 선물 시장의 일부가 규제된 미국 시장으로 이전되었다. Coinbase 최고법률책임자 폴 그레왈은 이번 승인을 업계의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 규제 대상 기업들이 글로벌 디지털자산 파생상품 거래소와 경쟁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Coinbase, Robinhood의 영향력 확대를 기대할 수 있는 대목이다.
- 국내는 전통 금융의 거래소 지분 확보가 이어지고 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거래소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디지털자산 시장 진출의 필수 요소라고 판단, 선제적으로 지분을 투자하여 파트너십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한다.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은 컨소시엄 주도로 개화할 전망이기에 향후 거래소에 대한 전통 금융 기업들의 투자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최근 3년 BTC 가격, 나스닥 지수 추이



자료: Artemis, Refinitiv, 하나증권

최근 3년 ETH, SOL 가격 추이



자료: Artemis, Refinitiv, 하나증권



Tech&Stock Weekly

2026.05.29

Analyst 김재임 jamie@hanafn.com

Analyst 김시현 sihyun_kim@hanafn.com

RA 송종원 1223sjw@hanafn.com

데이터 인프라 소프트웨어에게 AI는 위협이 아니라 성장 동력

스노우플레이크 (SNOW.US): AI 제품의 매출 기여 시작, 큰 폭의 Beat & Raise 이유

1QFY27 Review: 매출 성장 가속화 뚜렷, 가이드언스도 예상보다 빠르게 상향 조정

- FY27년 1분기 실적은 스노우플레이크에게 AI가 위협이 아니라 강력한 성장 동력임을 입증. 제품 매출은 13.3억 달러로 34% YoY 성장, 가이드언스를 7ppt 상회했으며 이는 기존 상회폭 추이를 크게 뛰어넘는 서프라이즈
- 조정 OPM 12%(컨센 10%), 조정 EPS는 0.39 달러로 컨센을 22% 상회. FY27년 제품 매출 성장 가이드언스를 기존 27%에서 31%로 4ppt 상향조정. 통상적으로 1분기에 올린 조정폭 대비 상당히 높은 수준
- 고무적인 점은 1분기 Beat, 가이드언스 상향 조정의 가장 큰 요인이 AI 제품의 매출 기여. AI 코딩 에이전트 CoCo(Cortex Code)가 2월 초 GA 이후 1개 분기 만에 7,100개 계정 수를 기록했고, CoCo 사용 고객군의 기존 플랫폼 사용량 증가로 이어지면서 플라이휠 효과가 발생하고 있음

데이터 플랫폼 사업자는 구조적 AI 수혜자

- 2분기 가이드언스는 제품 매출 성장 30% (컨센 26%), 조정 OPM 12.5% (컨센 11.7%) 제시. 스노우플레이크는 AWS와 5년 60억 달러 규모의 신규 계약을 체결했으며 Graviton 컴퓨팅 및 AI 서비스 활용과 공동 GTM 투자가 포함. AWS 플랫폼 내의 누적 매출 70억 달러 돌파는 스노우플레이크 플랫폼 위에서 실행되는 데이터 워크로드에 대한 수요 증가를 입증하는 수지로 판단됨
- 소프트웨어 각 세부 분야별로 AI 영향이 다르며, 데이터 플랫폼의 경우 AI가 선순환 효과를 만드는 수혜자라는 점이 확인되고 있음. 보수적인 가이드언스 추정 원칙을 따르면서도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가이드언스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구조적 AI 효과를 입증하는 것으로 판단됨
- 향후 CoCo 채택 확대, Snowflake Intelligence 상용화 진전에 따라 매 분기 실적에서 Beat & Raise 패턴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스노우플레이크가 AI 수혜주임을 더욱 확고하게 입증해 나갈 것으로 판단

몽고DB(MDB.US): AI 에이전트 메모리 플랫폼으로 전환

- MDB는 1분기 실적과 2분기 가이드언스가 예상치를 크게 상회. 실적 발표 직후 시간외거래 초반 주가가 급등했으나 컨콜에서 CEO가 “현재 분기 Atlas 매출 가이드언스 대비 큰 폭의 서프라이즈는 기대하지 말라”는 코멘트 이후 초반 상승분 반납
- 계절성이 큰 사업인 EA 사업도 2분기 가이드언스를 +20%로 강력한 성장을 전망했으나 FY27년 연간 성장은 ‘mid-single-digit’ 수준을 전망, 하반기 EA 성장 둔화를 시사한 점도 초반 과열 분위기를 식혔던 요인
- 실적 발표 전날 SNOW 호실적 달성으로 MDB 주가가 급등하며 실적 기대감이 이미 선반영된 측면도 있음
- 이번 실적을 통해서 확인된 점은 소프트웨어 섹터 세부 분야 중에서 데이터 인프라 서브섹터는 AI가 위협이 아니라 중요한 성장 동력. MDB는 EA 사업 영향으로 기저/역기저 효과 영향이 크고 계절성이 높으나 Atlas 확대에 따라 예측 가능성이 크게 개선

주목할 코멘트

- 에이전트 워크로드는 초기 단계이나, 프로덕션 배포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대형 금융·헬스케어 기업에서 확신을 얻고 있음
- MDB의 유연한 스키마와 LLM의 언어 구조가 일치한다는 점이 핵심 경쟁 우위 요인
- 에이전트 메모리 레이어로서의 MDB 채택이 새롭게 부상하는 수요 패턴이며, 이 영역에서의 확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
- Atlas는 사업 규모 확대에 따라 예측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개별 고객·코호트 변동에 대한 민감도가 낮아지고 있음
- EA 하반기 Flat 가이드언스의 주요 원인은 FY26 하반기의 강한 역기저 효과 때문
- FY27년 가이드언스 상단 기준, Rule of 40 달성(매출 성장률 ~20% + 영업이익률 ~20%) 전망



AI PC와 AI 서버, 양대 성장 엔진 탑재한 레노버에 주목

Hana China Weekly | 2026.5.29

Analyst 백승혜 sh_baek@hanafn.com

RA 안기량 giryangan@hanafn.com

주요 이슈 점검

레노버(0992.HK): 1분기 AI PC/서버 실적 호조로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

- 레노버의 올해 1분기(FY4Q26) 매출은 215.9억달러(YoY +27.1%)으로 컨센서스 12.5% 상회, 순이익은 5.21억달러(YoY +479.5%)로 컨센서스 78.9% 상회. AI PC 및 AI 서버 실적 고성장을 통해 최근 5년래 가장 높은 매출 성장을 달성했으며, 1)AI 서버 부문 흑자전환, 2)고마진의 AI/프리미엄 PC 매출 비중 확대에 따른 Mix 개선, 3)비용 효율화 등에 기인해 분기 순이익이 시장 기대치를 큰 폭 상회.
- 1분기 AI 관련 매출은 YoY 84% 급증하며 총 매출의 38% 차지. AI 서버 잠재 수주 규모는 210억달러 이상으로 GB300 NVL72 채택 증가에 따라 전분기 150억달러 대비 크게 확대, Rubin 기반 플랫폼은 2026년 하반기 출시 목표. 또한, 레노버는 Windows AI PC 시장에서 글로벌 1위, 점유율 31%를 기록, 1분기 AI PC 출하량 비중은 30% 이상, AI PC 포함한 프리미엄 PC 출하량 비중은 50%로 확대.
- 경영진은 향후 2년 내 연매출 1,000억달러 달성을 목표로 제시, 연평균 매출 성장률은 약 10% 내외 전망. 2026년 연간 서버 생산능력은 7만 랙 이상, 이 중 AI 워크로드용 직접수냉 랙은 1.1만 랙 이상으로 제시.

샤오미(1810.HK): 1Q26 매출 예상치 하회, 혁신 사업 부문 적자 전환

- 5/26 발표한 샤오미 1분기 매출액은 991.4억위안(YoY +10.9%)으로 컨센서스 0.3% 하회, 순이익은 61억위안위안으로 (YoY -43.7%)로 컨센서스 4.2% 상회. GPM은 22.0%(YoY -0.8%p)를 기록. 혁신 사업 부문(EV+AI) 매출액은 198.6억 위안(YoY +6.9%), 영업손실은 31.3억 위안으로 적자 전환. 2025년 3분기 첫 분기 흑자·연간 흑자 달성 이후 한 분기 만의 반전이나, 춘절 비수기와 신형 SU7 전환기 일시적 수요 공백이 복합 작용한 것이며 구조적 문제는 아니라고 평가.
- 레이첼 CEO는 향후 5년간 R&D에 최소 2,000억 위안을 투자하겠다고 발표(1Q26 단일 분기 R&D 지출만 90억위안으로 YoY +33.4%). 3년간 AI에만 최소 600억 위안을 별도 투입할 계획으로 스마트폰-EV-AI를 동시에 육성하는 '트리플 플라이휠' 전략의 전폭적인 투자를 공식화하였음. 샤오미는 전기차 첫 진출을 2027년 하반기 유럽으로 선정했으며, 이후 동남아·중동 등으로 순차 확장할 방침이라고 발표.

니오(9866.HK): 1Q26 실적, 매출액 및 순이익 모두 부진

- 5/21 발표한 니오 2026년 1분기 매출은 255.3억위안(YoY +112.2%)으로 컨센서스 0.2% 하회, 순손실은 331.0백만위안으로 분기 기준 적자 전환하였음. GPM은 19.0%(YoY +11.4%p)를 기록. 니오 전체 브랜드 ASP는 27.3만위안으로 지난해 24.0만위안 대비 상승했으나, 차량 대당 원가가 1만위안 이상 상승한 점이 부담으로 작용. ES9 사전판매 개시 이후 ES8 주간 주문이 +30% 증가하며 신규 모델 출시에 따른 기존 모델 수요 잠식 우려가 불식된 점은 긍정적. 하반기 주력 모델은 니오 ES8 5인승 버전이며, 6월 중 NWM(니오 월드 모델, 자체 개발 자율주행용 AI 기반 모델)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최신 업데이트를 전 차종에 배포해 주행·주차·능동 안전 기능을 전반적으로 강화할 예정.

HANA US Weekly

해외주식분석실 | 2026.6.1

Analyst 강재구 jaekoo.kang@hanafn.com

RA 이재은 jaeunlee@hanafn.com

하반기엔 AI와 제조업을 같이 봐야 하는 이유

미국의 내구재 주문 두 달 연속 상승

- 하반기엔 인공지능과 산업 자동화(피지컬AI) 등을 포트폴리오에 포함할 것을 권장한다. 우리는 2026년 하반기 전망 'Trump Showtime: AI 슈퍼사이클 모멘텀 & 확장될 리쇼어링'을 통해 하반기 핵심 포트폴리오로 AI 관련 IT 하드웨어 인프라와 산업 자동화 기업을 추천했다. 미국의 제조 관련 지표에서도 AI의 긍정적 영향력이 나타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는 '빼앗긴 일자리를 되찾고, 미국의 제조업을 부활시키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국가 차원에서 인공지능 산업을 육성할 것이다.
- 우리는 하반기 전망을 통해 인공지능이 두 가지 경로로 미국 제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첫 번째 경로는 데이터센터 건설 확대다. 미국의 건설 계획지표(Dodge Momentum Index)는 작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상승했다. 계획지표가 12-18개월 선형하는 특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 해 하반기부터 건설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장비 렌탈 기업인 유나이티드 렌탈은 비수기인 1분기에 양호한 실적을 발표했다. 신규 데이터센터와 파생되는 전력 인프라 증가를 강조했다. 제조 시설도 늘고 있다고 했다.
- 두 번째 경로는 산업 자동화와 로봇틱스 산업의 확장이다. 미국의 리쇼어링 대상 산업은 전통적인 제조업이 아닌 첨단 제조업이다. 미국의 무역지표에서 이러한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국의 아시아 전략은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다. 2025년 4월 관세 발표 이후 중국으로부터의 수입과 수출은 매월 전년 대비 두 자릿수씩 줄고 있다. 중국을 대체할 파트너는 베트남과 대만이다. 베트남은 생필품 등 전통적인 제품 생산 기지다. 대만은 첨단 부품 생산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로 미국 상무부는 지정했다. 미국 본토에선 첨단 제품을 생산할 계획이다. 미국의 정밀 부품 기업 노벤타는 첨단 반도체(EUV/DUV 리소그래피 공정 등) 및 AI 제조 투자 수혜가 나타나고 있다. 자동화 수요가 커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 현지시각 28일 발표된 미국의 4월 내구재 신규 주문은 3,460억 달러로 전월 대비 7.9% 확대됐다. 2개월 연속 MoM 증가세다. 방위산업 제품을 제외해도 3,203억 달러(MoM +8.1%)로 민간 제조 수요가 회복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통신장비는 4월 한 달 신규 주문이 49억 6천만 달러로 전월 대비 3.1% 늘었고 전년보다 65% 이상 확대됐다. 출하도 45억 8천만 달러(YoY +44%)다. 주문이 출하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수요가 공급을 앞서고 있음을 의미한다. 컴퓨터와 관련 제품도 4월 신규주문 28억 7천만 달러(YoY +26%)다. 연초 이후 누적 주문액은 107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2억 달러 많다. AI 인프라 수요가 제조업 주문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다는 증거다.
- 기계류 신규 주문은 4월 422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5% 증가했고, 연초 누적으로는 1,676억 달러(YoY +9.7%)다. 출하도 YTD 기준 418억 달러로 전년보다 8.7% 증가했다. 주문과 출하가 균형 있게 확장되고 있다. 자동화 설비 수요가 꾸준히 소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금속 신규 주문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리쇼어링 관련해 긍정적인 해석이 가능하다. 1차 금속 신규 주문은 YTD 1,181억 달러(YoY +10.6%), 가공 금속 제품도 1,757억 달러(YoY +7.1%)다. 관세 영향으로 미국내 조달 수요가 늘면서 소재 산업에도 긍정적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
- 데이터를 종합하면 두 가지 경로가 선명히 확인된다. AI 인프라 투자는 통신장비와 컴퓨터 주문 급증으로, 리쇼어링은 기계류, 금속 설비 투자 확대로 나타나고 있다. 일시적 반등이 아닌 구조적 추세라고 볼 수 있는 이유는 신규 주문과 출하가 함께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수요가 실제 생산으로 소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하반기 포트폴리오에 AI 관련 IT 하드웨어 인프라와 산업 자동화 기업을 담아야 하는 이유다.
- 하반기 전망 추천 종목: 1) 공급망 병목: MU, NVDA, STX, COHR, GLXY, 2) 시장 지형 변화 및 기업의 진화: AMD, AMZN, 3) 피지컬 AI: NOV, RRX, CGNX, TKR 등.

단기 투자유망종목

글로벌투자분석실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증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삼성전자 (005930.KS)	6/1	317,000	신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AI 수요 견조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DDR4 가격상승과 더불어 NAND 업황 개선 맞물려 DDR 및 NAND 가격 상승은 레거시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에게 긍정적
현대차 (005380.KS)	6/1	723,000	신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세와 인센티브 부담에도 HEV 비중 사상 최대 수준까지 확대되며 제품 믹스 개선 지속 단순 자동차 제조업을 넘어 모빌리티·AI 프리미엄 구간 진입
LG에너지솔루션 (373220.KS)	6/1	458,000	신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ESS 출하 증가와 AMPC 증가 효과 맞물리며 3개 분기 만의 흑자 전환 예상 ESS 시장 확대와 빠른 CAPA 증설에 따른 2028년 이익 추정치 상향 가능성 유효
HD현대중공업 (329180.KS)	6/1	696,000	신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 건조 Mix 중 저마진 상선 비중 높아 향후 개선 여력이 경쟁사 대비 많아 데이터센터용 엔진 공급 수주를 통해 발전용 엔진 시장으로 성장기 성장동력 확대 전망
LG이노텍 (011070.KS)	6/1	1,458,000	신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환율 + 롱테일효과 + 기판 수요 호조로 2Q26 호실적 기대감 존재 전장 및 서버용 FCBGA 가동률 상승에 따른 가파른 실적 개선 전망
KT&G (033780.KS)	6/1	184,700	신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 담배의 두 자릿수 성장과 국내 킬러 점유율 상승으로 호실적 기대 자사주 소각·신규 매입 및 배당 확대 기조가 이어지며 모범적 주주환원 부각될 전망
삼성증권 (016360.KS)	6/1	119,800	신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브로커리지·WMIB 수수료가 모두 개선되며 리테일 강세 국면의 실적 레버리지 부각 국내증시 거래대금 확대와 IBKR 외국인 통합계좌 출시로 투자자 저변 확대 기대
OCI홀딩스 (010060.KS)	6/1	349,500	신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페이스X와 다년 공급계약 협의 보도로 우주데이터센터용 신규 수요처 확보 기대 폴리실리콘 CAPA 증설 계획 구체화/가속화에 따른 기업가치 상승 기대
덕산하이메탈 (077360.KQ)	6/1	12,990	신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2Q26 Preview 매출액 2,115억원(YoY +67.0%), 영업이익 263억원(YoY +69.0%) 전망 데이터센터 내 일반 디램 및 낸드 채용 확대에 따른 솔더볼 수요 증가 중
에치에프알 (230240.KQ)	6/1	31,850	신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6월 미국 AWS-3 재경매를 시작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주파수 경매 예정 AT&T의 CAPEX 확대와 중국 통신장비 업체 퇴출에 따른 북미 통신장비 투자 수혜 기대

단기 투자유망종목 수익률

주간(Last Week)		누적(YTD)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1.05%	-6.77%p	+86.08%	+10.60%p

주: BM은 KOSPI, BM대비 누적수익률은 일 평균 종목수익률을 BM과 비교 적용한 후 누적 계산. 주기 단위로 Rebalancing, 손절가(Loss cut)는 증가기준 -10%선 적용

중장기 투자유망종목

글로벌투자분석실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증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현대모비스 (012330.KS)	6/1	768,000	신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AS 부문, 유럽-미주 수요 호조와 평가 인상, 우호적 환율 효과로 26%대 고마진 회복 보스턴다이내믹스향 로봇 핵심부품 내재화로 로봇 현금흐름 가치 부각될 전망
삼성전기 (009150.KS)	5/26	1,340,000	2,127,000	58.73%	<ul style="list-style-type: none"> AI 서버 랙 전력밀도 상승과 800VDC 전력 인프라 도입으로 서버용 MLCC 탑재량 증가 타이트한 수급과 가격 조건 개선이 하반기 실적 레버리지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삼성증권 (016360.KS)	5/26	129,900	119,800	-7.78%	<ul style="list-style-type: none"> 브로커리지·WM·IB 수수료가 모두 개선되며 리테일 강제 국면의 실적 레버리지 부각 국내중시 거래대금 확대와 IBKR 외국인 통합계좌 출시로 투자자 저변 확대 기대
OCI홀딩스 (010060.KS)	4/20	267,500	349,500	30.6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페이스X와 다년 공급계약 협의 보도로 우주데이터센터향 신규 수요처 확보 기대감 상승 폴리실리콘 CAPA 증설 계획 구체화/가속화에 따른 기업가치 상승 기대
SK하이닉스 (000660.KS)	4/13	1,027,000	2,333,000	127.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1Q26 Preview 매출액 53조원(YoY +203.0%), 영업이익 37조원(YoY +395.0%) 전망 빅테크 중심의 HBM 수요가 견조한 가운데, 대규모 CAPEX가 동반되며 HBM 수혜 전망
RFHIC (218410.KQ)	4/13	91,900	90,100	-1.96%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및 국내에서 수개월 내 신규 주파수 할당 공고 및 경매 이루어질 전망 NXP의 통신 부문 철수와 미국/EU의 중국 장비 규제 강화로 MS 확대 예상
삼성전자 (005930.KS)	4/1	167,200	317,000	89.59%	<ul style="list-style-type: none"> AI 수요 견조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DDR4 가격상승과 더불어 NAND 업황 개선 맞물려 DDR 및 NAND 가격 상승은 레거시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에게 긍정적
두산에너지빌리티 (034020.KS)	4/1	91,800	105,600	15.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글로벌 원전 투자 확대와 체코·미국 등 대형 원전 프로젝트 수주 기대 2026년 에너지빌리티 부문 가이드런스 매출액 7.4조원, 신규 수주 20.3조원 제시
POSCO홀딩스 (005490.KS)	4/1	332,500	423,500	27.37%	<ul style="list-style-type: none"> 1Q26부터 대수리 영향 해소와 자회사 실적 개선으로 안정적 수익성 회복 전망 수입산 철강 규제-중국 생산 규제 수혜로 철강 부문 스프레드 확대 기대
LG이노텍 (011070.KS)	4/1	293,500	1,458,000	396.76%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환율 + 롱테일효과 + 기판 수요 호조로 2Q26 호실적 기대감 존재 전장 및 서버용 FCBGA 가동률 상승에 따른 가파른 실적 개선 전망

중장기 투자유망종목 수익률

분기(2Q)		누적(YTD)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39.25%	-14.60%p	+62.66%	-12.82%p

주: BM은 KOSPI. BM대비 누적수익률은 일 평균 종목수익률을 BM과 비교 적용한 후 누적 계산. 분기 단위로 Rebalancing. 손절가(Loss cut)는 증가기준 -10%선 적용

ETF 투자유망종목

해외주식분석실



국내 ETF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증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KODEX A반도체 (395160)	2026.02.27	29,560	53,770	8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4) 양산 본격화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및 한미반도체 등 국내 AI 반도체 밸류체인 핵심 기업에 집중 투자 온디바이스 AI 확산과 AI 서버 수요 폭증으로 인한 메모리 수급 불균형 속에서, 차별화된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의 실적 개선 및 가치 재평가 기대
WON 초대형IB &금융지주 (0154F0.KS)	2026.02.24	15,160	12,895	-14.9%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및 밸류업 프로그램의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되는 대형 증권사와 주요 금융지주 등 핵심 금융주에 집중 투자하는 패시브 ETF 초대형 IB의 구조적 성장성과 금융지주의 안정적인 배당 매력을 동시에 추구. 미래에셋증권, 한국금융지주, KB금융, 신한지주 등 국내 금융 섹터를 대표하는 우량 종목들로 구성
에셋플러스 코리아 대장장이액티브 (442090.KS)	2026.02.24	25,365	37,680	48.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방 산업의 경쟁 심화 속에서 부품, 장비, 소재 등 후방 산업(소부장) 내 독점적 지위를 가진 대장장이 기업들에 집중 투자하는 액티브 ETF 반도체, 방산, 조선 등 한국의 핵심 수출 산업 밸류체인에서 차별화된 기술력을 보유한 강소기업들을 선별 편입. 국내 주요 수출주들의 실적 개선과 맞물려 시장 지수 대비 추가적인 수익 창출 기대
PLUS 글로벌방산 (496770.KS)	2025.03.04	13,000	18,750	44.2%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과 유럽의 주요 방산기업들을 편입하는 종목. 독일 방산업체 라인메탈디펜스,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 스웨덴의 사브 등이 포트폴리오에 포함 트럼프 행정부의 NATO 방위비 압박으로 주요국들의 국방비가 증액되는 추세. 안보 환경 변화에 따른 구조적 수혜를 누릴 것으로 기대

Global ETF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증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SMH (글로벌 반도체)	2025.11.24	339.12	598.93	76.6%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형주 비중이 높은 대표 글로벌 반도체 ETF. 매출의 50%가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생산 분야에서 발생하는 기업들을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편입 엔비디아의 실적과 가이드언스를 통해 AI 산업의 꾸준한 성장 모멘텀 확인. SMH는 NVIDIA와 TSMC가 30% 이상의 비중을 차지. Capex 경쟁 지속 가운데 소비전력 AI 시장 확장, 신제품 교체 기반의 견고한 수요 기대 유효
SPHQ (미국 대형 퀄리티 주식)	2026.03.23	75.80	85.36	1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익성(ROE), 이익의 질(미결제영업자산 변동), 재무 건전성(레버리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S&P500 내 최상위 우량주 100개를 선별해 투자 매크로 불확실성 및 실적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에서 탄탄한 펀더멘털을 보유한 기업에 집중해 지수 대비 견고한 하방 경직성과 장기적인 초과 수익 추구
XLE (미국 에너지)	2026.01.02	45.65	56.29	2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S&P500 에너지 업종 ETF. 에너지 섹터의 대형주 20여개로 구성된 포트폴리오. ExxonMobil과 Chevron의 비중이 40%를 상회하는 구성 트럼프 정부의 중남미 영향력 확장 시도 가운데, 베네수엘라 정권 개입 상황이 미국 대표 원유 관련 기업들의 이익 증가 및 자산 회복 기회로 연결될 가능성. 유가 모멘텀은 제한되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들의 개별 요인 주목
MADE (미국 제조업 기업)	2025.10.27	30.66	37.63	2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내 매출비중 조건 반영. 중대형 제조업, 제조업 관련 기업들로 구성된 ETF 관세 구조와 트럼프 정책의 지속성에 초점. 상호관세는 협상 여지가 있는 반면, 품목관세는 협상 가능성이 낮아 장기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 공급망의 리쇼어링 현상 확대 전망. 정책 수혜 및 내수 익스포저 기반의 수혜 기대

주: 기준가는 편입일 당일의 종가, 전일증가는 한국 시장 3시 30분 기준.

Calendar

글로벌투자분석실

SUN	MON	TUE	WED	THU	FRI	SAT
5.31	6.1	6.2	6.3	6.4	6.5	6.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 5월 제조업 PMI (E --, 이전치 50.3) 중국 5월 서비스업 PMI (E --, 이전치 49.4)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 5월 수입 (E --, 이전치 16.7%) 한국 5월 수출 (E --, 이전치 48.0%) 한국 5월 제조업 PMI (E --, 이전치 53.6) 일본 5월 제조업 PMI (E --, 이전치 54.5) 미국 5월 서비스업 PMI (E --, 이전치 55.3) 유로존 5월 제조업 PMI (E --, 이전치 5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 5월 CPI (E --, 이전치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 5월 서비스업 PMI (E --, 이전치 50.0) 미국 5월 서비스업 PMI (E --, 이전치 5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로존 5월 서비스업PMI (E --, 이전치 46.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로존 4월 PPI (E --, 이전치 2.1%) 유로존 1분기 GDP (E --, 이전치 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5월 실업률 (E --, 이전치 4.3%)
6.7	6.8	6.9	6.10	6.11	6.12	6.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 전기대비/전년대비 1분기 GDP F (E --/--, 이전치 0.5%/3.4%)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 1분기 전기대비/전년대비 GDP A (E --/--, 이전치 1.7%/3.6%) 중국 5월 수출 (E --, 이전치 14.10%) 중국 5월 수입 (E --, 이전치 25.30%) 미국 4월 무역수지 (E --, 이전치 -\$60.3b)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 5월 전월대비/전년대비 PPI (E --/--, 이전치 2.3%/4.9%) 중국 5월 PPI (YoY) (E --, 이전치 2.80%) 중국 5월 CPI (YoY) (E --, 이전치 1.20%) 미국 5월 전월대비/전년대비 CPI (E --/--, 이전치 0.60%/3.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 5월 실업률 (E --, 이전치 2.8%) 유로존 5월 기준금리(주요재용자금리) 결정 (E --, 이전치 2.15%) 미국 6월 1주차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E --) 미국 5월 전월대비/전년대비 PPI 최종수요 (E --/--, 이전치 1.40%/6.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 4월 전기대비/전년대비 광공업생산 (E --/--, 이전치 0.8%/2.3%) 미국 6월 미시간대 소비자신뢰지수 A (E --, 이전치 44.8) 	

주: 1) 괄호 안은 예상치(E), 전월 순, 한국시간 기준 (*E)는 당사 추정치. 2) 유로권, 북미는 전월대비(PCE 디플레이터는 전년동월대비), 아시아, 신흥국은 전년동월대비 기준, 3) P(속보치), A(잠정치), F(확정치)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업자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자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는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